**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**

**이춘연 영화인상 수상자 선정!**

**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故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신설한 바 있는 이춘연 영화인상의 올해 수상자를 발표했다.**

**국내 최고 영화전문가 4인이 뽑은 올해의 수상자**

**<다음 소희>(2022), <낭만적 공장>(2022) 김지연 프로듀서 선정!**

**올해로 2회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춘연 영화인상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故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 기존 시상식에서 쉽게 언급되는 감독이나 배우가 아닌,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한 우수 프로듀서를 발굴,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.**

올해 이춘연 영화인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봉된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한국독립영화협회, 한국영화제작가협회,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세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후보를 선별하였으며, 국내 최고의 영화전문가 4인의 심사위원이 고심 끝에 최종 수상자를 선택했다.

심사위원으로는 영화 <쉬리>(1999), <태극기 휘날리며>(2004) 등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연출한 강제규 감독을 비롯해, 영화 <공동경비구역 JSA>(2000), <건축학개론>(2012), <아이 캔 스피크>(2017) 등 오랜 시간 영화 제작에 참여하며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, 영화 <봄날은 간다>(2001), <올드보이>(2003), 드라마 [종이의 집: 공동경제구역](2022), [비질란테](2023) 등 영화와 드라마 할 것 없이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국민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유지태, 한국독립영화 원석들을 꾸준히 발굴해온 부산국제영화제 정한석 프로그래머가 지난해에 이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.



수상자 <다음 소희>(2022) 김지연 프로듀서

올해 이춘연 영화인상 수상자로는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<다음 소희>(2022)의 김지연 프로듀서가 선정됐다. 김지연 프로듀서는 영화 <남영동1985>(2012), <도희야>(2014), <낭만적 공장>(2022)의 제작 및 프로듀싱에 참여하며, 영화를 통해 자신만의 소신 있는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.

강제규 감독은 **“필모그래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작품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뚝심 있는 프로듀서”**라며 심사평을 전했다. 이어,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**“오랫동안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해 온 영화인으로 그의 미래에 대한 성취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”**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. 배우 유지태는 **“김지연 프로듀서는 자신의 소신대로 영화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춘연 영화인상 수상자에 걸맞은 인물이다”**고 축하를 전했으며, 정한석 프로그래머는 **“김지연 프로듀서는 오랜 경력과 더불어 지금까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온 영화인이다”**고 격려했다. 이춘연 영화인상 시상식은 영화제 기간 중인 10월 5일(목) 20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진행된다.

**이춘연 영화인상은 지난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제안하고 후원하여 신설된 상으로, 우수한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로 결정된 프로듀서에게 격려를 담은 1천만 원 상금을 수여한다.** 첫선을 보인 지난해에는 영화 <최선의 삶>(2021) 제작에 참여한 백재호 프로듀서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.

이렇듯 올해의 최우수 프로듀서를 선정하며 화제를 모으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4일(수)부터 10월 13일(금)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관객과 만남을 가진다.

[**프레스 배지 신청 바로 가기**](https://www.biff.kr/kor/addon/10000001/page.asp?page_num=547)

**BIFF 2023 보도개요집**

\*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: 10월 4일(수) - 10월 13일(금)

\*제18회 아시아콘텐츠&필름마켓 : 10월 7일(토) - 10월 10일(화)